

지역 소식통

국도23호선 고창 대산출산지구 도로정비공사 조기착공

고창군이 국도 23호선 고창 대산출산지구 도로정비공사를 조기에 착공한다고 10일 전했다.

군은 지난 국도 23호선 영광~대산 도로확장공사(4차로) 종점과 대산우회도로(4차로) 개설공사 시점 사이 출산교차로 인근 미확장구간(2차로, L=300m)의 병목현상 발생으로 교통흐름장애 및 대형 사고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익산국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해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에 따라 올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미확장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고창 대산 출산지구 도로정비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현재 분할착공 및 감정평가가 진행중이며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조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6억원 부과 납부 고지서 발송

정읍시는 올해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6억원(4만6000여건)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이다. 이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 신·중축 건축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위택스와 지로에서 조회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와 금융기관 자동화기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물놀이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여름철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이 나섰다.

시는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현장 기동반'이 10일부터 17일까지 현장점검 활동을 강화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철보물대마유원지 물놀이장과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 내장산뒤편파크,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을 비롯 여름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대철교와 고현교 등 주요 교각 밑이다.

시는 점검 대상의 편의시설과 청소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2023세계잼버리 유치 나섰다

김종규 부안군수, 남미 4개국 스카우트연맹 방문 지지 호소

김종규 부안군수가 남미 4개국을 방문해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를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김종규 군수를 비롯하여 조정식 전북스카우트연맹 사무처장 등 4명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3일 간의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퀴라소, 바하마, 벨리즈 등 남미 4개국 스카우트연맹을 찾아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를 위해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김종규 군수는 지난 5일 아르헨티나 스카우트연맹 'Jhon Hesson' 지프커미셔너를 면담하고 부안 새만금을 홍보했다. 이어 7일에는 퀴라소 'Frendel Pappy Laatz' 지프커미셔너를 만나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중립적인 태도로 입장표명을 마루고 있던 아르헨티나 퀴라소 스카우트연맹 임원들은 이번 김종규 군수 등 방문단의 진심어린 설득과 부안 새만금이 가진 훌륭한 여건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듣고 부안 새만금 지지를 표명했다.

김종규 군수 등은 10일 바하마 스카우트연맹, 12일 벨리즈 스카우트연맹을 차례로 방문해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규 군수는 "2023년 세계잼버리가 부안 새만금으로 유치되면 참가자들인 청소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모아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자와 참가자들간 상생협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불과 10여 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변한 기적의 땅 부안 새만금에서 세계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그려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규 군수는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안전하고 완벽한 시설준비와 편의지원에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청소년들을 어머니와 참가자들간 상생협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불과 10여 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변한 기적의 땅 부안 새만금에서 세계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그려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우트연맹, 12일 벨리즈 스카우트연맹을 차례로 방문해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규 군수는 "2023년 세계잼버리가 부안 새만금으로 유치되면 참가자들인 청소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모아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자와 참가자들간 상생협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불과 10여 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변한 기적의 땅 부안 새만금에서 세계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그려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규 군수는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안전하고 완벽한 시설준비와 편의지원에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청소년들을 어머니와 참가자들간 상생협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 도입

이달부터 음식점 350개소 중심으로 진행

고창군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0일 전했다.

군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길에 방치되면서 이로 인한 악취와 통행불편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를 실시해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는 이

달부터 고창읍 음식점 350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음식물 수거용기에 상호명을 기재해 부착 후 주기적인 세척을 통해 영업주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결한 수거용기 사용용업소를 만들어 첫인상이 좋은 음식점을 만들고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을 해소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거용기 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실명제를 통해 통행인들이 배출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거리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우선 고창읍 음식점을 중심으로 시험실시 후 성과에 따라 고창군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기술이전 제품 쇼핑몰 입점 판매

(제)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가 기술을 이정한 제품들의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 판매 등 다양한 판로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는 지난 5월부터 다드림 주식회사와 함께 고창군 대표 제품으로 손꼽히는 연구소 기술이전 제품의 쇼핑몰 입점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연구소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고창군 관내기업에 기술이전을 해왔으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아로나이 윈액과 음료 그리고 식초음료가 있으며, 홍도라지 전액 그리고 베리하니걸릭스 티등이 있다.

연구소 기술이전 제품들은 다드림(주)(http://www.ddreamcolor/) 쇼핑몰을 통해 제품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작두콩차와 돼지감자차 등 차류 제품과 목련, 국화, 해당화 등의 꽃차등의 제품 그리고 도라지를 가공한 홍도라지즙도 다음 달부터 쇼핑몰을 통해 소개 될 예정이며 고창종천 정어와 더불어 다양한 가공제품들도 오는 10월에 추가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호우'

6개 과목 개설 288명 군민 참여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전북대 고창캠퍼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과정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은 올해 고창캠퍼스에 라인댄스와 부동산경매, 서예, 사주명리 학지도자, 원예치료사, 커피 바리스타 자격 과정 등 6개 과목을 개설해 현재 288명의 군민의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총 20주에 걸쳐 운영되는 평생교육 과정은 과목당 정원의 두 배가 넘는 군민이 참여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명이 정원의 커피 바리스타 과정에는 54명이 수강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원예치료사 자격과정은 25명 정원에 40명, 부동산경매와 자산제테크에는 40명 정원에 70명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교육 과정들이 이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군민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가 높고 군이 평생교육과정에 앞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군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강좌들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점들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고창읍 조병복씨는 "전북대 고창 캠퍼스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배움에 갈증이 있는 지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다양한 강좌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김종희 국회의원,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및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이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김종희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사진)이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전국 케이방방송에서 활약하는 지역방송인들이 어려운 방송여건에서도 공적방송에 대한 신념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권익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면서 "지역 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때, 케이방방송이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방송발전에 나름의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지방자치 22주년과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정대상 및 지방자치행정대상은 지방자치TV(전국케이블방송)가 주최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대한민국 의정대상 및 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정당 국회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온 으뜸 국회의원을 수상자로 전북에서는 김종희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There are also images of gift sets and a QR code.